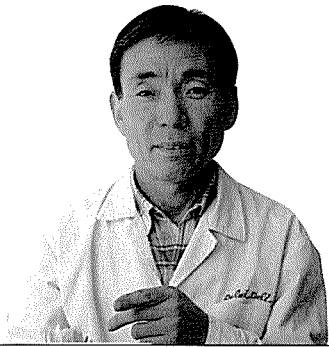


환경운동은 원가 10% 절감의 비결



최삼림 <달리텔리 대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웠을 때는 사실 환경오염, 환경파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한 이유죠. 어머니께서 쌀뜨물로 국을 끓이고 세수한 물로 걸레를 빨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TV에서 흔히 보는 공익광고가 아니다. 달리텔리 대표인 최삼림씨가 요즘 환경운동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는 대단한 환경론자는 아니다. 단지 제과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도우넛을 튀긴 후 나오는 폐유 활용, 빵포장지 OPP를 절약하는 방법, 재고빵 처리 등이다. 쉽게 넘어가는 문제지만 심각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곧바로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어서인지 심각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그냥 마실 수 있던 수도물을 이제는 끓여서 먹어도 의심스러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게에서 벌이고 있는 환경운동은 이런 것이다.

도우넛을 튀긴 후 나오는 폐유는 모아두었다가 새마를 부녀회나 폐유 수집상에게 보낸다. 대부분 수고비에도 미치지 않는 보상이지만 개의치 않는다.

또 도우넛 튀기는 기계를 직접 주문·제작했다. 기름의 산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찌꺼기가 타기 때문. 따라서 기름과 찌꺼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기계의 아랫부분을 움푹하게 제조했다. 무거운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기계의 아랫부분에서 그 부분의 기름만 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반죽을 한 그릇은 절대 물로 직접 씻지 않는다. 최대한 제품을 만들고 남은 것은 굵어서 따로 버린다. 그냥 물로 씻어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생각에서다.

또한 포장비닐이나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종이 중 재사용이 가능하면 버리지 않는 것도 그의 실천중 한가지다.

그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절약정신 때문이다. 항상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재원을 아끼고 사용이 가능한 것은 항상 다시 쓰도록 그 자신이나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마찰이 만만치 않다. '사소한 일까지 간섭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편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에 앞서 걱정도 된다. 바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우리 업계의 '치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회·지부별로 결성돼 있는 자율지도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더군요. 네가 뭔데 상관하느냐! 너나 잘 해라! 등의 이기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과점에서 자원 재활용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환경보호 외에도 원가절감이라는 또다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최삼림씨는 적어도 10%이상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